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2년 12월 1일 (화) 제 822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 주가 여기 계시거늘

<창세기 28:10~16>

이진용 목사 (도요타메구미전도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 나와 삼촌이 있는 ‘하란’이란 곳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서 있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야곱 이전에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으며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11:4)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지만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꿈에 나온 계단은 창세기 11장의 성과 탑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계단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는 만남입니다.

하늘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출해서 산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그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고 광야의 장막에 거하신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어 잠이 들었을 때,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약속 이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는 것이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창28:13~15)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은 가슴 뛰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실현되는 때는 언제일지 모를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신자는 그 장래의 약속 앞에서 보이지 않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 할지, 그렇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만 하며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고통, 고민은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내일과 장래는 불분명하고 흐릿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보다 ‘현재’에 누릴 ‘보상’을 더 바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해 주셨듯이 ‘장래에 대한 큰 소망’을 약속해 주셨지만 야곱은 당장에 자기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한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자신을 지켜 주시는 것’,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제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 일 역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현실적인 것만 집중하기 보다 ‘소망’에 관한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경험하는 구체적인 고통과 낙심 때문에 불확실한 장래를 소망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도 어려웠지만, 그 때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지나서 올 수 있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지금 당장은 장래가 보이지는 않고 불확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난 날에 남아 있는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얻고 내일을 소망하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창 28:16)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듯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확실한 장래를 소망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나눠 주신 음식을 먹고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열려 그 분이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대림절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여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관서지방교회

# 상크스페스티벌 개최

## '살롬!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이루자!'

관서지방교회 청년부·장년부·여성부 3부 공동주최 제11회 상크스페스티벌이 10월 30일(주) 오후 3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살롬!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이루자!' 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침공해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우자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3년 만의 개최가 되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대면 및 유튜브를 통한 영상 생방송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다. 12개 교회에서 86명이 참석해 주님의 인도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부 개회예배에서는 배정에 목사(히라오카)가 '회복과 평화'(삼상7:3-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에서는 가코가와침례교회 우메타니 사토루 목사의 강연으로, 목회를 48년간 해 오시면서 10명 정도의 개척교회에서 5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병설 요양시설, 교회 스쿨 및 해외에 선교사 파견·지원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셨다.

제3부에서는 와카마츠 유코 자매(가와니시)가 플루트, 아버지 미하라 히로시(바이올린), 어머니 미하라 하루에(피아노) 씨가 함께 해주었다. 와카마츠 씨의 간증도 있었고 참가자 모두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임이 마무리되었다.

(보고 : 관서지방교회 장년부)



선교위원회

# 온라인 이단세미나 개최

## 통일교와 정치와의 관계에서 보는 선교과제

선교위원회 주최 이단 세미나가 10월 28일(금)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는 "통일교와 정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선교과제", 강사는 탁지웅 사제(일본성공회 동경교구 임마누엘 신생교회 주임사제)였다. 총회 내외에서 56명의 교역자와 신도가 참가했다.

프로그램 진행으로는 선교위원 장경태 목사(후나바시교회)의 사회, 김인과 목사(후쿠오카교회)의 기도에서 이어 위원장인 조영철 목사(오사카북부교회)가 간단한 인사와 강사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진행을 담당했다. 이단에 의한 피해자의 가족이기도했던 강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80분동안의 열띤 강연을 해주었다.

이번에 개최된 이단 종교에 관한 세미나는 선교위원회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이단 종교의 경계와 대책에 관한 일부분으로 특히 최근 일본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교 문제를 바로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재 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강연 후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통일교와 정치와의 관계, 또한 선교과제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교위원장 조영철 목사의 폐회기도로 이단 세미나를 종료했다.

(보고 : 조영철 목사)



관동지방교회

# 창립70주년 기념예배 개최

## 축하찬미제로서 160여명이 참가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1953년에 4교회 84명의 여성들이 동경교회에 모여 <부인회京浜地方연합회>란 명칭으로 창립예배를 드렸음이 50주년 기념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후 1976년 본회의 명칭을 <부인회 관동지방연합회>로 변경. 또 다시 1994년 명칭을 지금의 <관동지방교회 여성연합회>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7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가장 작고 연약한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열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2022년 11월3일(木),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예배와 축하 찬양제가 10교회, 160여명이 참석하여 거행되었다.

기념 예배에서는 지방회 여성부장 이혜숙목사가 <평화를 만드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와 박은주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내빈 소개와 축사, 축전 피로에 이어 각양 각색의 모양

으로 각 교회 여성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사랑을 공유하며, 여성연합회 위원들의 <은혜 아니면>특별 찬양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인도하심과 찬양 가사처럼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 아니면 설 수 없는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창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장소로 제공해 준 동경교회 당회와 방송관련에 봉사해 준 교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헌품을 통해 선물 제공해 준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고 :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24대 회장 박영원)



# 2023年度 宣教師・神学生研修会案内

在日大韓基督教会に加入する宣教師と、神学校を卒業し伝道師考試を受験する方のために研修会を実施します。

- 日 時 : 2022年2月26日(主日) 17:00 ~ 3月4日(土) 12:00
- 場 所 : オンライン (ZOOM)
- 履修課目 : KCCJ神学・宣教理念、憲法・規則、在日同胞史、KCCJ歴史、日本教会史・神学、エキュメニカル神学、KCCJ教会・礼拝・礼典・説教など、総会行政・年金・福祉など日本生活全般
- 詳細は総会事務局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総幹事080-4377-3927)

在日総会神学校理事長 金日煥長老、校長 鄭然元牧師



어린이 식당을 개설하여 지역과 연결하고 지역선교에 힘쓰고 있는 일본기독교단 미쯔교회를 소개합니다.

# 「미쯔(三津)교회, 교회어린이식당의 활동」

일본기독교단 三津교회 모리와케 노조미 (森分望) 목사



제가 섬기고 있는 일본기독교단 미쯔교회는, 에히메현 마쓰야마시(愛媛県松山市)의 교외에 있는 항구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07년, 미국 남감리교회의 선교에 의해 강의실이 개설된 이후 올해로 창립1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척전도를 한 미국 남감리교회의 선교사는, 미쯔지역이 얼마나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는가를 보고하고 있는데, 1889년에 미쯔지역을 향한 선교가 시작될 무렵부터 회당이 허락되기까지 50년이상 상점 처마밑을 전전하면서 예배를 계속 해 온 역사는 열악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쯔지역에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외심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쯔교회에 부임한 이래, 교회 온 신도들과 함께 “어떠한 교회가 되고 싶은가”를 놓고 의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겨와 주셨지만, 어느새 부터인지 50년, 60년의 세월과 함께 그 속에서 익숙해져버린 신도들과 그리고 그 자제들이 모이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좀 더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 열린 따뜻한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교회의 염원이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열린 따뜻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시간에 “어떤 종교 문제에 휘말렸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을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교회에 왔다, 도와달라”고 하며 어느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분은 매주 예배와 모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너무 어려워 먹지 못하는 데다가 장애가 있어 글씨를 읽지 못해 “예배도 기도회도 성경공부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을 통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복음인가를 자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 : 15-17).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들 사이로 구원(사랑)이 실제로 느껴지고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았던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나아감과 동시에 교회 또한 복음으로 인한 따뜻한 열매와 사역을 더 풍성히 해 나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형식만 있고 근본정신이 상실되어 가는 공동체에 대한 반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새로이 교회와 주위 상황을 살펴 보니, 지역간의 교류는 희박해져가고, 고령자들은 외롭게 식사를 하고, 주변에서는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

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교회 바로 옆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분에게는 무관심하고 교류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독신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핍질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들 가운데 7명 중의 한 명은 빈곤하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논을 거듭해 오다가 창립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역과 함께 걷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만장일치로 교회 어린이 식당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19년 1월, “교회어린이식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처음으로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째날 식당의 메뉴는 교회 특유의 카레라이스와 샐러드, 손수 만든 쥬리였습니다. 교회근처에 전단지들을 나눠 주고,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안내를 낸 정도의 개점이었습니다.

봉사자는 교회원 10명. 정말 사람들이 찾아올까 내심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얼마 안되어 아이들의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준비한 카레 50인분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계절의 퀴즈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등 훈훈한 한 때를 보냈습니다.

초고령화를 맞이하는 교회가 어린이식당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정성을 다해 만드는 일, 각각은사를 살려 서로 분담하며 활동한 일, 함께 밀착해 살아온 일, 이러한 것들은 어느 것이나 교회가 늘 해 오던 일이었기에 어린이식당은, 지금까지 배양해 온 더불어 사는 교회공동체의 경험들을 살려 외부로 향해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회어린이식당은, 한달에 한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오후5시부터 6시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어른 300엔, 어린이(18세까지)와 대학생은 무료입니다. 지금은 매일 130명-150명가량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봉사해 주시는 분은 교회원을 중심으로 크리스천학교의 YWCA 학생들이나 지역분들 30명-50명이 참가해 주고 계십니다. 봉사자중에서 예배에 출석하거나 세례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분이 늘어나서 시작하게 된 식품지원활동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오후6시까지 기업 및 슈퍼마켓, 농가에서 제공된 식품을 시내 19개의 어린이식당, 20개의 복지단체, 궁핍한 약 80세대 200여명의 분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활기차고 분주한 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23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2023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 implements. 詳細の案内と請願書などは総会のホームページ (<http://kccj.jp>) をご参照ください.

- 一. 日 時 : 2023年3月14日 (火)
  - ・ 09 : 00 ~ 오리엔테이션
  - ・ 09 : 30 ~ 19 : 00 (筆記試験・面接)
- 二. 場 所 : 在日大韓基督教会 大阪KCC

- 三. 申請(書類提出) : 2023年2月14日 (火) (必着) 総会事務局
- 四. 提出先 : 総会事務局
  -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 電話番号 (03)3202-5398 FAX (03)3202-4977
  - 神学考試委員会
  - 委員長 朴榮子、書記 韓世一
  - (問い合わせ TEL 090-1907-2613)

# <제11회 WCC카를스루에 총회 참관기>(3)

##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총회 기간 중, 토요일과 주일은 참가자 각자가 어떻게 보낼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자에게 카를스루에 시내와 주변에 있는 교회의 주소와 예배시간 등의 정보가 공유되어, 각자가 자유롭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카를스루에 있는 교회 전체가 교과를 초월하여 WCC 총회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정보공유에 더하여 “주말 순례 프로그램”(Weekend Pilgrimage Programme) 또한 준비되어 있었다. 토요일과 주일, 합쳐서 75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참가자들은 사전에 2지망까지 선택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데이투어(day tour)일정이었지만, 몇 개는 1박2일 일정이었다. 프로그램의 리스트에는 독일 국내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 등의 나라를 방문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웃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는 바덴지역의 특색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각 프로그램의 소개문에는 지역마다 다른 선교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곳에 위치한 교회들이 에큐메니컬한 형태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얼마나 오랜 준비기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WCC 총회를 위해 바덴지역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각 프로그램에 신청자가 많이 모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참가자를 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들에게도 주말 순례 프로그램 참가의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참가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것이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방문하고, 대학병원의 채플린과 지역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컬한 “패스트럴 케어”(Ecumenical clinical pastoral care)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에 구시가지(旧市街地)로 이동하여, Jesuiten교회와 성령교회(Church of the Holy Spirit)를 방문하였다. 두 곳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였고, 그 아름답고 장엄한 예배당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두 교회는 구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주민을 목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성령교회에서는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성령교회 안내자는 교회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이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정면에 서서 보도록 권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6.8.1945”이라는 날짜와, 붉게 무너져 가는 구체(球體), 그 오른쪽 위에는 “E=mc<sup>2</sup>”라는 수식이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안내자는 그것이 원자폭탄 투하를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설명과 함께,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 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헨(Aachen)이라는 지역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다. 아헨은 라인강에 접하는 작은 마을로 주로 개신교인들로 구성된 커뮤니티였다. 그 마을의 선교과제

는 난민 수용이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아헨에 있는 개신교회 주일예배에 출석했다. 전철이 지연되어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예배시작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게스트를 위하여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배는 두 명의 여성목회자가 이끌었다. 한 명은 독일인 목사였고, 또 한 명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목사였다. 독일인 목사는 독일어로 사회를 보고, 나이지리아인 목사는 영어로 사회를 보고 설교했다. 예배 출석자는 독일인과 나이지리아와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독일에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우리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예배 후 이어진 점심식사 때에는 교회 신도들이 각자 자신의 출신지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 베풀어 주었다. 교회원의 대표는 난민으로 온 자매와 형제들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에 방문한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아헨에 온 난민에게는 어른도 아이도 자전거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공되는 자전거는 새것은 아니고, 고장난 것을 수리하고 깨끗히 닦아 다시 탈수 있게 한 것이다. 우리 참가자들을 안내해 준 자원봉사자 중 한 사람은 내륙지에 위치한 독일에서 자전거는 자신의 뜻대로 어디까지나 갈 수 있는 “자유 상징”이라고 말했다. 난민으로서 아헨에 온 사람들은 그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며 조금씩 지역의 일원이 되어 간다. 또한 난민에게는 자원할 경우 자전거를 수리하는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생활비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에 자원봉사자로서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아헨이라는 마을이 난민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드리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회 역할의 보편성, 독일이라는 나라 차원의 난민수용은 이런 지역사회가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도 일본도 난민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 이전에, 시민들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난민을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신의 이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보고 : WCC 총회 참가자 일동)

